

일월의 닭관리

임 병 규

1. 계사의 방한 대책 강화

이달의 우리나라 기후는 몽고 및 시베리아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고기압이 태평양을 향하여 대규모의 북서 계절풍을 불러 내리는 한편, 급격한 한파의 내습으로 일년 중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인다. 그래서 서울 지방도 -20°C 에 가까운 추위가 예상되며 평균 습도는 50%내외로서 상당히 건조한 편이나, 뜻하지 않은 기압골의 영향으

〈표 1〉 1월의 기온($^{\circ}\text{C}$) 및 상대 습도(%)

지역	평균기온	평균최고기온	평균최저기온	최저기온('66)	최대교차('66)	평균상대습도
춘천	-7.3	-0.4	-14.1	-19.4	15.8	62
강능	-1.0	3.8	-5.2	-12.1	14.2	44
서울	-4.9	-0.4	-9.5	-18.0	12.2	57
수원	-5.1	-0.1	-10.1	-18.0	15.8	67
대구	-1.6	3.7	-6.2	-13.8	17.0	52
전주	-1.7	2.9	-6.2	-13.5	16.2	61
광주	-0.6	4.0	-4.8	-11.0	13.6	67
부산	1.8	6.4	-1.9	-10.9	11.5	50
제주	4.8	7.6	1.9	-1.6	13.3	73

〈표 2〉 1월의 일출 및 일입 시간과 일조 시간 (시, 분)

지역	1 일			11 일			21 일			31 일		
	일 출	일 입	일 조	일 출	일 입	일 조	일 출	일 입	일 조	일 출	일 입	일 조
제주	7.39	5.36	9.57	7.39	5.44	10.05	7.36	5.54	10.18	7.31	6.03	10.32
목포	7.42	5.34	9.52	7.43	5.42	9.59	7.40	5.52	10.12	7.34	6.02	10.26
부산	7.32	5.22	9.50	7.33	5.31	9.58	7.30	5.41	10.11	7.24	5.51	10.27
광주	7.41	5.31	9.50	7.42	5.39	9.57	7.38	5.49	10.11	7.23	5.59	10.26
전주	7.42	5.28	9.46	7.42	5.36	9.54	7.39	5.46	10.07	7.33	5.57	10.24
대구	7.36	5.22	9.48	7.37	5.30	9.53	7.33	5.40	10.07	7.28	5.51	10.23
인천	7.48	5.25	9.37	7.49	5.34	9.45	7.45	5.45	10.00	7.39	5.56	10.17
강능	7.40	5.16	9.36	7.40	5.24	9.44	7.36	5.35	9.59	7.30	5.46	10.16
서울	7.47	5.24	9.37	7.47	5.33	9.46	7.44	5.43	9.59	7.37	5.54	10.17

※ 일출 시간은 오전, 일입 시간은 오후 시간임.

로 큰 눈도 염려된다(표 1 참조).

이 달에는 계사의 방한 및 보온 시설을 면밀히 점검하여 추후도 소홀한 곳이 없도록 함은 물론 계사 내의 환기의 냉각(換氣外冷却)을 최소 한도로 줄이는 데 힘쓴다.

한 방법으로 계사의 서북쪽에 방풍책을 가설하여 계절풍의 강습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는 것도 좋은 것이며, 계사의 벽이나 창문에 가마나 짚을 둘러주며 (특히 야간에 계사 바닥에는 왕겨나 톱밥을 두툼하게 넣고 복도 등에는 가마니를 깔아 주는 것도 계사 내의 열 손실을 막는 데 큰 도움을 주리라 믿는다.

그런데 겨울철 산란 계사에 난로를 피워주는 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 난로를 피워서 계사 내의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것은 좋겠으나, 단일 계사의 단열 구조가 영성하던가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열 손실을 일으켜 야간의 온도에 저하되어 계사 내 기온의 일교차(日較差)가 심할 경우에는 계사 내 환경의 악순환이 매일 되풀이 된다. 그러므로 비싼 연료비를 드린 효과를 기대하기는 커녕 오히려 닭의 건강을 해칠 위험을 느낀다.

따라서 계사 내 온도를 주간이나 야간에 7°C 전후로 유지할 수 있다면 구태어 난로를 피워서 $15\sim 20^{\circ}\text{C}$ 로 올려주기에 앞서 계사 내 기온의 일교차를 최소한으로 줄여지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다. 겨울철의 환기 요령은 산소 공급보다도 계사 내의 온도 유지에 주력해야 한다.

2. 충분한 섭식을 시킬 것

동지(12월 22일)가 지나 이달부터는 일조 시간이 점점 연장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 산란계가 필요로하는 시간에는 상당히 미달되어 이 달 말경에야 약 10시간 20분 정도이다(표 2참조). 그러므로 점등을 해주지 않고는 충분한 섭식을 시키기에는 일조 시간이 너무 짧다. 점등은 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실시해야만 한다. 그 외에도 사료의 섭취량이 줄지 않도록 잘 보살피 준다. 모이 그릇 및 급식 장소를 넓게 해 주고 모이 주는 횟수를 늘리는 한편, 자주 급이기를 흔들어서 급식 의욕을 높여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외국에서는 종계 사육시 종웅계(種雄鷄)만 설을 수 있는 급이기를 이용하여 사료에 마늘이나 파, 양파 등을 섞어줌으로써 식욕을 돋구어 섭식량을 높이고, 수정율을 향상시키는 예도 있다.

3. 사료 손실 방지

겨울철이기 때문에 변질로 인한 손실은 별로 없었으나 조류나 쥐류에 의한 손실도 무시할 수 없다. 쥐 한 마리가 1년동안에 9~11kg의 모이를 먹는다고 한다. 만일 한 양계장에 드나드는 쥐가 20마리 정도라면 자기 식량의 반을 쳐서 100kg 만해도 값이 무려 4,000원이나 된다. 먹을 것이 궁한 들쥐들이 양계장을 잘 노리니, 사료를 보관하는 창고나 계사 주위에 쥐덫이나 쥐약을 주기적으로 놓아 쥐를 잡아 없애도록 한다.

4. 구충과 소독

채란용 병아리를 평사에서 케이지로 옮길 때에는 구충제를 투여하여 내부기생충을 없애고 평사를 계속할 경우에는 3~4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구충을 한다. 한편 겨울철에는 닭 이와 같은 외부 기생충이 기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관찰하여 만일 닭 이가 눈에 띄면 1주일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살충제(린덴, B.H.C, 네구본 등)를 살포해 준다.

계사의 출입구에 있는 소독반에는 소독수가 지 않도록하고 증발 등으로 농도가 희석되면 설치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에 자주 보충해 준다.

계사 내부에는 크레졸 같은 살균제를 가끔 살포해 주고 계사 외부나 복도등에는 값이 싼 양

젓물을 뿌려 준다. 이 때 가성소다 석회 유액을 만들어 뿌려주면 더욱 효과적이다. 가성소다 석회 유액은 다음과 같이 만든다.

가성소다(양젓물 덩어리) 1파운드(약 0.5kg)

물 5가론(약 18ℓ)
소석회 2파운드(약 1kg)

5. 육추의 온도와 습도

부로일러용 병아리의 육추는 첫모이를 주면 서부터 불과 50~70일이면 부로일러로서 시장 출하되기 때문에 계절에 관계없이 발육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겨울철에는 환경 온도와 습도의 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된다.

육추 초기에 있어서 육추기내의 온도는 33~34°C로 해주는 동시에 육추실 내의 온도는 최소한 20°C는 되게 하여준다. 육추기내의 온도는 열원 부를 중심으로 하여 떨어질수록 낮게해 주고 기내의 적온은 온도계의 지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병아리의 활동하는 상태나 자는 상태를 보아 결정하여야 한다.

겨울철의 육추에 있어서는 육추기내의 습도를 등한히 하기 쉽기 때문에 상대 습도를 70%이상 까지 올리는 데 방심하지 말 것이며, 특히 처음 1주일은 별도 급습 장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6. 육추기간에 충분한 급수

병아리의 음수량은 일령·습도·급여하는 사료의 질이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특히 첫 1주일간의 음수 요구량은 상당히 많아서 사료 섭취량의 약 5배가량 된다(표3 참조).

그러므로 급수기의 수나 설치 장소를 넓게 하

<표3> 부로일러의 주령에 따른 음수량비

주령	음수량/사료 섭취량	주령	음수량/사료 섭취량
1	4.96	5	1.50
2	1.12	6	1.59
3	1.48	7	1.49
4	1.64	8	1.57

여 병아리들이 고루 충분한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물의 온도는 14~17°C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